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전력

◆ 세르비아, 헝가리 원전 지분 구매 검토(주헝가리대사관)

- 헝가리 현지 언론(Portfolio 등)에 따르면, 알렉산다르 부치치(Aleksandar Vucic) 세르비아 대통령은 빅터 오르반(Victor Orban) 헝가리 총리와 의 정상회담(11.14) 계기 Paks 원자력 발전소 지분 구매를 제안함.
 - ※ 헝가리 정부는 이에 대해 상금 입장 미발표
 - 세르비아 정부는 에너지 공급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최근 불가리아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도 건설을 완료하여 LNG 터미널에도 접근성 개선
- 동 언론에 따르면, 세르비아 정부가 Paks 1의 지분을 구매하기를 원하는지 건설 예정인 Paks 2의 지분을 희망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, 세르비아 측이 2021년 가을에도 이를 한 차례 제기한 것을 감안할 때 Paks 1의 지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.
 - 2021년 당시 세르비아측은 지분 5~10% 구매에 대해 5억~10억 유로를 제시한바 있으며, 금번 제안시에는 시장 가격을 전액 지불할 것이라고 언급
- 현지 전문가들은 세르비아가 이러한 제안을 재차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단순한 에너지 수입이 목적이 아닌, 세르비아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만큼 향후 자체적인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적 제휴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.
 - 세르비아 에너지부는 '24.8월 원전 건설 구상 관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'을 발표한 바 있으며, '24.9월에는 에너지-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인 Egis Industries 및 프랑스 전력공사(EDF)에 세르비아 원자력 에너지 사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 연구 준비도 의뢰

기후·에너지 정책

◆ 일본 2035년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 수립 동향(주일본대사관)

- 일본 정부는 '25.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신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와 관련하여 2035년까지 2013년도 대비 60%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.
 - ※ 현재 NDC 목표는 2030년까지 2013년도 대비 46% 감소
 - 경제성장과의 양립이라는 관점에서는 장벽이 높으나, 발전(發電), 수송과 같은 국내 산업의 탈탄소 가속화를 위해 추진할 방침
- 일본 정부는 11.25(월) 실시하는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의 합동 회의에서 전문가 등에 목표안을 제시하고 연내 조정을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임.
 - 아울러, 2040년 전원(電源) 구성을 결정하는 신규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. 끝.